

개념을 확 잡는

비문학 워크시트



《고교독서평설》의 읽기 자료를 활용한

비문학 확인 문제를 풀면서 문해력을 높이고 수능 국어 영역 실전에 대비하세요.

차례

인문·예술

- 1 존엄한 죽음은 존엄한 삶으로부터
- 2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더라

사회·문화

- 3 기준금리는 누가, 왜 정하나?
- 4 중앙대학교
- 5 카페 그늘 자리

과학·기술

- 6 디지털 문명은 0과 1의 조합일 뿐일까?
- 7 몸의 생각
- 8 우리의 언어에는 마찰이 필요하다

- 9 정답 및 해설

워크시트 활용법

1. 해당 코너를 꼼꼼히 읽고 내용을 숙지한다.
2. 코너 하단의 QR코드로 문제를 내려받는다.
3. 확인 문제를 풀며 문해력과 수능 감각을 끌어올린다.
4. 채점한 뒤 틀린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복습한다.

존엄한 죽음은 존엄한 삶으로부터

문화비평: 세상을 거슬러 읽다 | 본문 82p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프랑스 영화감독 장뤼크 고다르의 장편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는 () (이)라는 영화 기법으로 유명하다.
- (2) 고다르의 죽음을 처음으로 알린 프랑스 일간지 ()은/는 고다르 지인의 말을 인용해 그의 마지막 선택을 보도했다.
- (3) 한국에서 안락사라는 주제가 처음 본격적인 토론의 대상이 된 건 1997년 () 때다.
- (4) 2008년 '김씨 할머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사회적 토론은 () 제정으로 이어졌다.

2 <보기>는 본문에 나온 조력사를 설명한 신문기사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본문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보기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다. 자국의 법망에서 벗어나 단체를 통해 조력 사망하려는 외국인들이 스위스로 모여드는 이유다. 이에 자국에서 조력 사망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조차 관련 법망이 느슨한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단체들이 비영리를 내세우면서도 후원 명목의 가입비와 거액의 조력사 비용을 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상업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선 연간 80~100프랑(우리돈으로 약 12~15만 원)의 회비 또는 220프랑(우리돈으로 약 33만 원)의 일회성 가입비를 내야 하고, 이후 조력 사망을 진행하는 데 의사 상담 및 처방, 수행비, 장례비 등을 포함해 7,500~1만 500프랑(우리돈으로 약 1,100~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제도의 공백 속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안락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지점에서다.

- 《○○신문》 2023년 7월 10일 자

- ① 유라: 국가에서 조력사를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구나.
- ② 하란: 스위스는 본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를 허용해.
- ③ 수정: 디그니타스는 이용자 자국의 조력사 관련법에 따라 죽을 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봐.
- ④ 은영: 조력사의 이유로 조력사 단체의 운영도 경제적인 요건을 빼놓고 논하기는 어려워.
- ⑤ 윤정: 디그니타스의 대표는 개인이 비용 문제로 조력사라는 선택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김흔과 조신은 모두 왕족 출신이다. ()
- (2) 조신은 꿈에서 갓 뒤 수행하며 평생 장원 관리인으로 살았다. ()
- (3) 『조신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꿈을 다룬 소설이다. ()
- (4) 『조신전』의 조신, 『구운몽』의 성진은 행동하는 인물이자 깨닫는 인물로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

- (1) 조신이 김씨 낭자와의 사랑을 빌기 위해 찾아가던 낙산사는 통일신라의 승려 ()이/가 지은 곳이다.
- (2) 『침중기』에서 도사 여응은 신세한탄을 하는 노생에게 ()(으)로 만든 베개를 건넨다.
- (3) 『조신전』과 『침중기』의 꿈속 삶은 ()(이)라는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장치다.
- (4) 조신과 김씨 낭자의 사랑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신전』은 ()(으)로도 볼 수 있다.

보기

- 고려 후기의 승려
- 생몰: 1206~1289
- 호: 목암
- 『화록』, 『계승잡저』 등 저술
- 남해 정림사에서 『고려대장경』 제작에 참여

- ①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②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③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 ④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⑤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기준금리는 누가, 왜 정하나?

이제부터, 아는 금융 | 본문 98p

6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미국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
- (2)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기준 없이 재량껏 금리를 정할 수 있다. ()
- (3) 기준금리를 정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이 회의를 주최한다. ()
- (4) 앨런 그린스펀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을 지냈다. ()
- (5) 최근 2년여 동안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금리와 관련이 있다. ()

7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 (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거나 내린 것을 뜻한다.
- (2)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은행이 임의로 정한 ()을/를 추가한 것이다.
- (3)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기 위해 여는 회의를 () (이)라고 부른다.
- (4) ()에서는 매우 작은 금리 상승에도 돈의 흐름이 바뀐다.
- (5)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상승하는 ()을/를 잡기 위해서다.

8 <보기>의 기사와 본문을 읽고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한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준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경기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종식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신문》 2021년 12월 ○○일 자

- ①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한 까닭은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이다.
- ② 미국은 인플레이션 종식을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결집했을 것이다.
- ③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늘어나 경기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 ④ 연준은 미국 정부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싶어 해도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
- ⑤ 미국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세계경제 침체와도 관련이 있다.

9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의 주된 기반암은 흑운모 편마암이다. ()
- (2) 흑석역 주변 골목은 일직선으로 시원하게 뻗어 있다. ()
- (3) 중앙대의 대표 건물인 영신관은 맞배지붕을 한 아름다운 목조건물이다. ()
- (4) 청룡연못은 자연 연못이었다가 인공 연못으로 재정비됐다. ()
- (5) 흑석동의 유일한 고등학교는 흑석고등학교다. ()

10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2002년 중앙대는 서울시의 () 사업으로 담장과 정문을 허물었다.
- (2) 중앙대의 상징 동물은 () (으)로 이 동상이 세워진 연못도 있다.
- (3) ()은/는 배수를 억제하는 암석이다.
- (4)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주택 재건축 방식은 () (이)다.
- (5) 흑석동 곳곳에 남은 () (이)라는 지명은 '맑은 한강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이라는 멋진 뜻을 지녔지만, 친일 청산 과정에서 자취를 많이 감췄다.

201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II

11 <보기>는 감람석과 흑운모의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두 광물은 모두 규산염광물이다.
 ㄴ. 감람석으로 흑운모를 끓이면 흑운모가 끓는다.
 ㄷ. 흑운모 가루의 색은 검은색이다.

- ① $\neg$ ② $\sqsubset$ ③ $\neg, \sqsubset$ ④ $\sqsubset, \sqsubset$ ⑤ $\neg, \sqsubset, \sqsubset$

12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요새 카페는 커피 판매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
- (2) 마르크스주의에서 하부구조는 유형의 물질을 생산하는 물질적 토대를 말한다. ()
- (3) 마르크스는 관념이 실제 역사를 이끈다고 말했다. ()
- (4)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13세 미만 아동들은 「아동노동착취 금지협정」을 지키며 노동하고 있다. ()
- (5)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0년 세계 2위 수준이다. ()

13 <보기>는 본문에 나온 아동노동 착취를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보기>와 본문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잘못 말한 사람은?

보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UNICEF)는 아동노동에 해당하는 연령을 5~17세로 규정하고, 4년에 한 번씩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1억 6,000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보다 840만 명 늘어난 수치로, 꾸준히 감소하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 학교 폐쇄 등의 상황이 아동노동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과테말라의 커피농장들에서 아동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 농장에선 11~12세 아이들이 주 6일간 하루 6~8시간씩 커피콩을 따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루 수확한 커피콩의 무게만큼 임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최대 5파운드를 넘지 못했다. 더운 날씨에 해충이나 뱀의 공격을 받아 가며 커피콩을 따고, 무려 45kg에 달하는 커피콩 자루를 옮기는 아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 ① 하정: 커피를 마실 때 아동노동을 착취한 커피농장에서 생산한 원두를 피해야겠어.
- ② 선호: 아동노동을 무작정 금지하면 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해질 수도 있겠군.
- ③ 지윤: 커피 브랜드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검증됐으니 커피를 편히 마셔도 되겠어.
- ④ 윤슬: 우리나라의 높은 커피 소비량도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
- ⑤ 규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학교가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몰렸구나.

디지털 문명은 0과 1의 조합일 뿐일까?

의심이 묻고 사실이 답하다 | 본문 120p

14 해당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넣어 보자.

- (1) 두 휴대전화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좋아요' 신호는 수천 km를 여행할 필요가 없다. ()
- (2)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체 전력의 절반은 데이터센터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든다. ()
- (3) 희토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성할 때도 필요하다. ()
- (4) 대부분 기업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 생산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의지하려 한다. ()
- (5) 시데이터레이블링은 난민촌에서 할 수 있는 공식 노동 가운데 하나다. ()

15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자.

- (1)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의 99%는 지하와 바닷속에 펼쳐진 ()을/를 통해 이동한다.
- (2) 벨기에의 데이터센터와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를 잇는 구글의 케이블 이름은 () (이)다.
- (3) 중국 베이징 북서쪽 네이멍구자치구의 중심 도시 () 근처에는 거대한 희토류 광산이 있다.
- (4) 순수한 희토류금속을 얻으려면 ()와/과 ()을/를 이용해야 하므로 위험하다.
- (5) 유럽과 미국에서는 희토류 정제·추출 산업이 () (으)로 지목되어 사라졌다.

16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기>의 ㉠과 ㉡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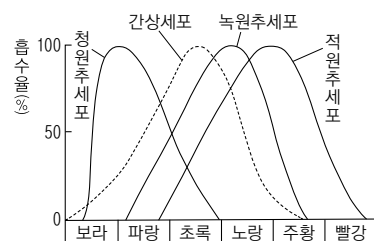
바다 밑 수천 km를 가로지르는 ㉠해저케이블 없이 ㉡디지털 문명은 유지될 수 없다.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의 99%는 지하와 바닷속에 펼쳐진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 ① 이연: ㉠은 눈에 띄진 않아도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 ② 준규: ㉠이 대륙과 대륙 사이를 잇는 이유는 기업 본사와 멀리 떨어진 데이터센터 때문이야.
- ③ 명호: ㉡의 안정성은 어선의 닻이나 상어 같은 의외의 요소로도 위협받을 수 있어.
- ④ 상우: ㉡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생각해야 해.
- ⑤ 시호: ㉠의 발전 덕분에 ㉡은 '무선 세계'로 한발 나아가고 있어.

- (1) 설명할 수 없는 뇌의 기억을 암묵 기억이라고 한다. ()
- (2)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외부 정보를 생체체 내부로 들여오지 못한다. ()
- (3) 도구를 이용해 감각기관을 확장하여 몸을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다. ()
- (4) 뇌는 사람에게 익숙한 도구라도 이질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
- (5) 생명체는 몸과 세계가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찾는다. ()

- (1) 뇌의 기억 중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을 ()이라고 한다.
- (2) 우리 눈에서 아주 작은 점이나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이다.
- (3) () 신경들의 활동전위는 운동뉴런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어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
- (4) ()이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차이를 내 몸에 적합한 방식의 차이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 19 그림은 빛의 파장에 따른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빛 흡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어두운 곳에서는 간상세포에 의해 색을 구별할 수 있다.
 ㄴ. 노란색은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가 함께 작용해야 감지된다.
 ㄷ.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것은 3가지 원추세포가 모두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 ① $\perp$ ② $\sqsubset$ ③ $\neg, \perp$ ④ $\neg, \sqsubset$ ⑤ $\neg, \perp, \sqsubset$

- (1) 자연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연수에 해당하는 수를 나열하는 것이다. ()
- (2) 자연수를 오해의 여지 없이 정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1920년대에 밝혀졌다. ()
- (3)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언어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정리다. ()
- (4) 『표준국어대사전』은 ‘쓸쓸하다’와 ‘적적하다’의 의미를 서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한다. ()
- (5) 필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한다. ()

- (1) 1888년 독일 수학자 ()은/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연수를 정의하려 시도했다.
- (2) '자연수에는 자연수밖에 없다.'라는 문장은 논증 방법 가운데 ()에 해당한다.
- (3) 필자는 언어와 ()의 대응이 매우 사적이라고 말한다.
- (4) 필자의 의견에 따르면 물이해가 없는 언어는 자연과학 술어와 ()뿐이다.
- (5) 필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이/가 된다고 주장한다.

보기

당신에게 달기 위해서라면, 방황과 상처도 감내하겠다는 선언. 이 선언과 함께라면 오해는 괴로움만을 ㉠안기는 부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 ① 강아지가 내 품에 달려와 안겼다.
- ② 집 뒷마당이 산에 안긴 모양새가 멋졌다.
- ③ 산책하는 길에 햇빛을 안고 걸어 눈을 뜰 수 없었다.
- ④ 너 혼자에게만 그런 부담감을 안길 순 없다.
- 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꼭 안아 주었다.

정답 및 해설

인문·예술

- 1 (1) 점프컷
(2) 《리베라시옹》
(3) 보라매병원 사건
(4) 연명의료 결정법

- 2 ⑤

[해설] 디그티나스의 대표는 치료비가 부족해서 존엄사라는 선택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 의료시스템과 통증 완화 의료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1) ×, 김훈은 왕족, 조신은 평민 혹은 하층 귀족이다.
(2) ×, 조신은 꿈에서 깨어나 지내던 곳으로 돌아간 뒤 장원 관리자의 책임을 벗었다.
(3) ○
(4) ×, 성진이 행동하는 인물이자 깨닫는 인물로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과 달리, 조신은 작품 속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못한다.

- 4 (1) 의상대사
(2) 청자
(3) 허망함
(4) 애정소설

- 5 ③

[해설]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이다. 1310년대 간행된 『삼국유사』는 일연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사회·문화

- 6 (1) ○
(2) ×,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조금씩 가감하는 선에서 금리를 정할 수 있다.
(3) ×,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의 주최는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이 맡는다.
(4) ○
(5) ○

- 7 (1) 빅스텝
(2) 가산금리
(3) 연방공개시장위원회
(4) 실물경제
(5) 물가

8 ③

[해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까닭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종식하기 위해서였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액은 늘고 대출액은 줄어든다. 따라서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감소하고 은행에 묶인 돈이 늘어나므로 이를 통해 물가와 경기를 하락시키겠다는 목적이다.

9 (1) ○

(2) ×, 흑석역 주변 골목상권은 비정형 패턴을 보인다.

(3) ×, 영신관은 석조건물이다.

(4) ○

(5) ×, 흑석동엔 현재 고등학교가 없고, 2026년에 흑석고(가칭)가 생길 예정이다.

10 (1) 캠퍼스 공원화

(2) 청룡

(3) 편마암

(4) 철거재개발

(5) 명수대

11 ③

[해설] 흑운모 가루의 색(조흔색)은 규산염광물의 색을 띤 흰색이다.

12 (1) ×, 카페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대여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2) ○

(3) ×, 헤겔은 관념이 실제 역사를 이끈다고 말하는 반면, 마르크스는 물질이 생산된 뒤에야 관념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4) ×,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13세 미만 아동들은 과도한 노동과 박봉에 시달리며 일한다.

(5) ○

13 ③

[해설] 불법이 벌어진 농장에서 생산한 원두는 네스프레소나 스타벅스 등 커피 브랜드 기업으로 흘러간다.

과학·기술

14 (1) ×, 휴대전화 두 대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좋아요' 신호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달된다.

(2) ×, 데이터센터의 전기는 내부 부품 냉각을 위해 많이 소모된다.

(3) ○

(4) ×,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

(5) ○

15 (1) 해저케이블

(2) 뒤낭

(3) 바오터우

(4) 황산, 질산

(5) 사양산업

- 16 ⑤
[해설] 일상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데이터뿐이므로 대부분 사람이 우리가 '무선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99%의 데이터통신은 지하와 바닷속 물리적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진다.
- 17 (1) ○
 (2) ×, 감각기관은 외부 정보를 생명체 내부로 들여오는 역할을 한다.
 (3) ○
 (4) ×, 뇌는 유연한 경계의 태도를 지닌다.
 (5) ○
- 18 (1) 외현적 기억
 (2) 중심와
 (3) 운동피질
 (4) 부호화과정
- 19 ①
[해설] ㄱ. 간상세포는 색을 구별할 수 없다. ㄴ. 3가지 원추세포가 빛을 흡수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다.
- 20 (1) ×, 자연수는 무한히 많기에 자연수 몇 개를 나열하는 것으로 '모든 자연수'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
 (2) ○
 (3) ○
 (4) ×,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쓸쓸하다'와 '적적하다'는 서로의 정의에 기댄 순환정의로 설명된다.
 (5) ○
- 21 (1) 리하르트 데데킨트
 (2) 순환논법
 (3) 감각
 (4) 향진명제
 (5) 미장센
- 22 ④
[해설] ㉠의 '안기느'는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마음속에 가지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부담감을 안길 순 없다.'의 '안길'은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